

리모델링

*

오늘 날씨는 웬지 흐렸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에는 먹구름이 보였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 같았다. 오늘따라 오묘한 날씨는 내 마음과 같았다. 나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듯, 벽지 귀퉁이는 종이짝 마냥 찢어져 떨어질 것 같이 힘아리가 없었다. 그러나 벽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것은 침대였다.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침대의 매트리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하면 삐걱대는 소리가 났다.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을 함께 견뎌준 것처럼 침대는 참 힘겨워했다. 머리판에 붙어 있는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스티커는 어린 시절 내가 소유한 물건임을 인증하는 것 같았다.

침대는 나에게 소중한데. 엄마가 나에게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사준 선물. 언니와는 다르게 엄마에게 받은 선물은 그 침대가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었다. 아마 나는 어린 마음에 누구도 손대지 않았으면 하여 침대에 스티커를 덕지덕지 붙였을 것이다.

나는 오늘 이 침대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나는 잠시 침대에서 벗어나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여러가지 반찬이 있었다. 서랍을 열어 즉석밥을 꺼냈다. 식탁에서 혼자 먹는 밥은 어색하지 않았다. 쓸쓸한 감정 또한 느끼지 못했다. 그냥 익숙했다. 그러나 평소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하고도 복잡한 기분. 밥을 먹으며 우리집을 둘러보았다. 처음이었다. 집안을 세세하게 둘러본 적이 언제였는가. 시계소리 또한 생생히 들리는 이 시간, 나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밥을 먹고나서도 선뜻 침대에 손을 대기가 어려웠다. 나의 손은 침대가 아닌 다른 것으로 향했다. 깨끗한 책상을 만지작거리며 손이 어색한지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했다. 나는 계속 침대 버리는 시간을 지체시켰다. 용기를 내서 침대 매트리스에 앉아보니,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기쁠 때나 슬플 때도 항상 이 한 자리에 머물렀었다. 머리판에 등을 기대어 몸을 움크린 채 나는 침대에서 내 마음을 달래곤 했다. 나의 어릴 적 눈물이 고스란히 매트리스에 담겨있는 듯 매트리스는 촉촉하고 따뜻했다. 어린 시절 나의 감정까지 다 받아주었던 침대를 이제 버린다는 것은 나에게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다. 지금까지 나에게 침대란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다. 이불 뿐만 아니라 매트리스와 침대까지 뱀 우리집의 냄새 때문인지 그 결을 떠날 수가 없었다.

솔직히 나는 침대를 버리기 무서웠다. 버려야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아마도 어려운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침대를 버림으로 어린 시절의 나를 잊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누구의 강요나 억압을 받지 않고 내가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나를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기로. 이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시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 선택을 보류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이 아님을 알기에 나는 이제 침대를 보내야 했다. 침대가 있는
방으로 가기까지의 나의 발걸음은 마음과 같이 무거웠다. 나는 침대에
있는 이불을 전부 걷어냈다. 이불을 걷어내니 침대는 과거의 내 모습과
같이 한없이 초라했다. 나는 미련 따위는 남기지 않겠다며 이불을
과감히 종량제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나는 매트리스와 침대 프레임
또한 전부 분리했다.

*

“나술지. 엄마 돌아가셨어.”

나의 밤잠을 깨우는 건 다름 아닌 언니의 전화였다. 언니가 나에게
전화하는 건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가끔 전화가 와도 부탁할 때 오는
전화가 전부였다. 엄마한테 가보라고 하든지. 돈 좀 보내달라든지. 뭐
좀 사달라든지. 언니는 이럴 때 아니면 전화를 잘 안 했다. 심지어
새벽에 나에게 전화를 하는 건 처음이었다. 언니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이미 한바탕 울고 전화했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다. 금방이라도
다시 울 것 같은 떨리는 목소리는 자고 있는 나의 잠을 확 깨어주었다.
언니가 말을 이어가지 못하자 형부가 전화를 이어 받아 사동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말해 주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다. 일어나 화장실에서
얼음장 같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다. 멍하니 아무런
감정을 느껴지지 못했던 나는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나는

오른뺨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내려쳤다. 바로 오른뺨이 손바닥 모양대로 빨갱게 부어올랐다. 나는 이것이 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가 죽었다니’. 나의 마음은 어떤 감정으로 단정 지어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하나의 감정으로 단정 짓기에는 내 마음속이 너무 복잡했다.

엄마는 건강했다. 누구보다 건강했기에 누구보다 오래살 줄 알았다. 나는 27년동안 한 순간도 빠짐없이 엄마를 외면하고 살았다.

우연히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엄마의 집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았다. 엄마가 자주 가는 마트나 미용실, 옷가게도 절대 가지 않았다. 나는 엄마를 보고싶지 않았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없었다. 엄마를 보기까지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오랜만에 엄마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죽음이라니.

나는 속이 시원하면서 답답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지는 건 처음이었다.

엄마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엄마가 죽었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으로까지 아직 안 내려온 듯 했다. 내 머리는 ‘엄마가 죽었다’라는 생각 뿐이었다. 뇌가 움직이지 않듯, 다른 것들은 생각이 안 났다. 장례식장으로 빨리 출발해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마음과 달리 내 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내 몸은 누가 본드로 붙여놓기라도 한 것 같이 움직이지 않고, 경직되어 있었다.

가야지, 라고 생각하기까지는 오래걸리지 않았다. 나는 장례식장에 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옷 입는 것조차 나에게 버거웠다.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손과

다리는 멈추지 않고 떨렸다. 나는 운전석에 앉아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평소에 침착함을 잘 유지하는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리는데. 언니는 오죽할까. 언니가 뭐라고 이런 상황에서도 언니가 걱정되는지.

이 시간만큼은 유독 시간이 느리게 갔다. 아니, 그냥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차 한 대도 보이지 않은 이 넓은 도로에서 내 차는 홀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

“솔지야. 저녁에 언니 남자친구도 우리집에 온대. 오늘 저녁은 평소보다 특별하게 준비하도록 해. 쇼핑 하다가 갈테니까 그 전까지 상차려놔.”

언니가 집에 형부를 처음 데리고 온 날이었다. 형부의 첫인상은 잊혀지지 않았다. 여자친구 엄마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형부는 야구모자로 눈을 가리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왔다. 말 그대로 집 앞 편의점 가던 꼴이었다. 엄마는 그런 형부의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언니는 그런 모습이 좋다면서 형부를 감싸주었다.

나는 마침 상을 다 차려 놓은 상태였다. 언니가 결혼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나에게 있었다. 언니가 결혼을 하면 분명 분가를 할 것이고, 그것은 내가 언니와 따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기대감에 나는 내 혼을 갈아서 음식을 준비했다. 임금님 밥상 마냥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상이 차려졌을 때, 비로소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집에 들어온 언니의 모습은 흥분한 상태였다.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엄마한테도, 형부한테도 죽어라 애교만 부렸다. 나는 언니가 애교를 부릴 때마다 우리집에 유치원생이 있는 줄 알았다. 과도한 손동작 사용은 내 눈을 찌푸리게 했다. 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를만큼 언니의

혀 짧은 목소리가 내 귀를 강타했다. 평소의 모습과 180도 다른 언니의 모습이 어이없으면서도 보면 볼수록 신기했다.

그 셋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언니는 내가 만든 갈비찜을 먹자마자 언니답게 한마디를 했다.

“야 왜이렇게 짜게 만들었어? 이 갈비찜 그냥 나트륨 덩어리 아니냐? 맛 보면서 만든 거 맞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나는 언니의 말소리에 잔뜩 긴장했다. 나는 언니가 더 말을 이어갈까 봐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 언니는 어이없다는 듯 간을 맞춰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일을 두번씩이나 안 해도 되잖아.”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건 어느 누구도 아닌 엄마였다.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갈비찜 한 조각을 들어 입에 넣었다. 부엌 뒷편의 식탁에는 미세하게 젓가락이 움직이는 소리와 음식을 씹어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답답한 마음에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다. 내 한숨은 앞머리가 위로 날라갈 정도의 깊은 한숨이었다. 나를 위한 암묵적인 위로도 못할 망정 엄마는 사람을 왜 더 화나게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사실, 나는 엄마가 언니에게 동생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편지를 하는 것조차 바란 적이 없었다.

언니는 부드러운 고기를 골라 형부 손가락 위에 올려주었다. 셋이 앉아 있는 식탁은 내가 있는 부엌과 달리 행복해보였다. 나와는 완전 다른 세상이랄까.

나술아는 계속해서 빈 접시를 가지고 왔다. 말없이 개수대 옆에 놓고 가는 동생은 다시 식탁에 앉으면 언니와 형부에게 용돈을 좀 더 달라는 등 애교섞인 말을 했다. 자고로 설거지는 뜨거운 물에 불렀다가 마지막에 찬물로 헹궈야 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오늘처럼 기름진

음식을 먹은 날에는 접시를 키친타올로 먼저 닦아야 했다. 키친타올로 닦은 접시는 왼쪽에 놓고, 어느정도 쌓이면 개수대에 뜨거운 물을 받아 넣었다. 김이 올라오는 물 위로 흐릿한 기름때가 떠올랐다. 설거지의 방법은 누가 알려줬을까. 설거지를 하는 방법을 최초로 정리한 사람은 누구일까. 엄마는 아닐 것이다. 찬물로 행구기까지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만을 바랐다. 설거지가 빨리 끝나면, 나는 언니와 엄마, 그리고 형부와 동생 틈에서 함께 식사를 해야 하니까 말이다.

엄마는 항상 나에게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된다고 말했다. 그게 내 뇌에 세뇌 당한 걸까. 나는 엄마가 항상 말하던 이 말이 내 귓속에 맴돌았다. 나는 스스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내 마음을 달랬다. 하지만 어떻게 좋은 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게 좋은 게 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들을 좋게 생각할래야 좋게 생각할 수 없었다.

형부가 간 뒤, 언니는 엄마한테 결혼하고 싶다며 징징거렸다. 이게 다 큰 자식이 엄마한테 할 짓거리인가 생각이 들면서도 언니기에 나에게 납득이 갔다. 언니는 결혼 준비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물론 돈을 모아둔 것 또한 하나 없었다. 언니가 한 결혼 준비라고는 아주 비싸고 드넓은 예식장과 화려한 드레스를 찾아 놓은 것 뿐이었다.

엄마는 결혼 준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언니에게 건넸다. 언니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다. 엄마도 언니도 돈이라고는 모아둔 게 하나도 없었다.

“언니가 결혼한다는데 나솔지가 결혼 비용은 대주겠지.”

언니는 뻔뻔하게 나에게 결혼 비용은 내달라고 말했다. 아니. 내달라고가 아니라 내라고 했다. 취직 후 가족들은 여러 명목으로 나에게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을 요구했다. 가족들은 나를 지갑으로 여기는 듯 했다. 언니는 자신의 결혼 비용을 동생이 내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소리를 못들은 채 식탁에 남아있는
음식물의 흔적을 닦았다.

*

늦게나마 도착한 장례식장의 주변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바람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고요한 새벽이었다. 그러나
장례식장 안에는 통곡 소리로 가득했다. 새벽의 장례식장은 한가했다.
조문객도 몇명 보이지 않는 이 새벽에 장례식장은 왠지 모르게
외로워보였다.

넓은 장례식장 멀리서 언니와 형부, 나솔아가 보였다. 언니는 죽은
시체 마냥 장례식 한 쪽 구석에서 멍하니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나솔아는 언니 옆에서 국화를 만지작거리며 허공에 대고 혼잣말을
했다. 엄마한테 하고 싶던 말을 이제와서 주저리 주저리 말하는
나솔아의 모습이 엄마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 같았다. 엄마가 죽었다는
슬픔을 과연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눈물과 통곡소리로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슬픔은 우리 가족에게는 힘겨웠을 것이다. 특히
엄마의 사랑을 온통 받고 자란 언니와 나솔아에게는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언니와 나솔아를 만난 건 4년만이였다. 나는 취직 후
얼마 동안 집에서 지내다가 독립을 했고, 그 후로 가족들을 보지
않았다. 일부러 보지 않았다. 엄마도 4년 전에 본 게 마지막이였다.
가족들도 그렇게 나를 찾는 눈치는 아니었다. 나는 그렇게 느껴졌다.
그냥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전화만 했을 뿐. 나를 그냥 가족이 아닌
하나의 도우미로 생각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만큼 가족들을 잊고
살았다.

언니의 모습은 내가 생각한 4년 전에 모습과 전혀 달랐다. 마냥
철없고, 해맑았던 언니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창백해진 얼굴에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어있었다. 언니는 누가 오든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상주 휴게실 한 구석에 축 처진 몸을 기대어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언니는 여전히 엄마의 어린 딸 같았다. 엄마,
엄마, 언니는 엄마를 씩없이 불렀다. 나는 그토록 미워했던 언니에게서
어쩔 수 없는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나솔지.”

멍하니 언니를 바라보고 있을 때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그 떨리는 목소리는 나를 정신차리게 만들었다. 나는 물끄러미
언니를 쳐다보았다.

“넌 아무렇지 않냐? 불쌍해. 불쌍해. 우리 엄마 불쌍해.“

언니는 허공을 보며 주문을 외우듯 엄마가 불쌍하다고
중얼중얼거렸다. 중얼거리다 분이 안 풀리면 언니는 찢어진 눈으로
나를 찌려보았다. 언니의 그 눈빛은 지금 누구든 죽일 수 있을 것만
같이 살기가 돌았고, 아무도 언니를 건드리면 안 될 것만 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언니의 혼잣말에 이질감을 느꼈다.

상주 휴게실에 들어가니 엄마의 영정사진이 보였다. 그 누구도
나에게 상주를 하라며 상복을 주지 않았다. 순간 나는 엄마에게 절을
할지 말지 고민되었다. 내가 엄마에겐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었을까. 조문객으로 있어야 할지 상주로 있어야
할지는 아무도 결정해주지 않았다. 내가 스스로 결정했어야 했다.

헝클어진 머리는 땀에 젖어 딱딱하게 붙어있었고, 힘 빠진 몸으로
나를 쳐다보는 언니는 나에게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됐었다며 나를
원망했다. 언니는 왜 그토록 탓을 나에게 돌리고 싶었을까.

‘그래도 가족인데.’

오랜 고민 끝에 엄마에게 절을 하지도 않았고, 나는 상복도 입지 않았다. 아니, 누구도 나에게 무언가를 행동하라는 지시를 주지도, 눈치를 주지도 않았다. 나는 그곳에서 이방인처럼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엄마였으니까 나는 엄마의 마지막을 잘 보내드리기로 결심했다. 내가 엄마의 삶을 생각해줄 처지는 되지 않았지만 엄마도 엄마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기에.

*

화장터가 아수라장이 되는 시간은 순식간이었다. 엄마의 유골함이 바뀐 것이었다. 엄마의 유골함이 바뀐 것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어디에도 일어날 것 같지 않던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엄마의 화장이 끝났을 때 화장로 기사는 우리에게 엄마의 유골함을 주었다. 화장로 기사가 유골함을 건네자마자 노란색 보자기에 싸여있는 엄마의 유골함을 나술아가 꼭 끌어안았다. 엄마의 유골함이 나술아 품에 안겨있었다. 엄마의 유골함은 웬지 모르게 따뜻해 보였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었을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나술아는 엄마의 유골함을 품에 꼭 안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한 듯 보였다. 나술아는 품에 유골함을 안은 채 두 손을 꼭 맞잡고, 소리없이 눈물만 흘렸다. 화장실을 다녀오니 유골함이 의자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노란 보자기의 엄마의 유골. 그러니까 지금 엄마의 모습. 처량하게 혼자 앉아 있는 엄마의 유골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까지 사랑할수도, 미워할수도 없었나 보다. 나는 유골함 옆에 잠시 앉아있다가 화장실로 발길을 옮겼다.

화장실에서 나오니 언니와 나솔아의 분주한 목소리가 들렸다.

“오미정. 엄마. 오미정 어딴어. 저희 엄마 제발 좀 찾아주세요.”

나는 언니와 나솔아가 정신이 나간 줄 알았다. 엄마는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엄마를 찾고 있다니. 나는 언니에게 가서 엄마는 이미 죽었다고. 다시 언니 곁으로 안 온다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러더니 언니는 생전 엄마가 아끼던 노란색 보자기 속 특유의 무늬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노란색 보자기에 쓴 엄마의 유골함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생전에 엄마는 그토록 아껴두었던 노란색 보자기를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가끔 엄마는 언니를 방으로 불러내어 만약 죽게 된다면 이 보자기에 싸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다. 그 보자기는 외할머니가 엄마에게 주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물건이었고, 어쩌다 그 보자기는 엄마의 유물이었다.

정신없이 엄마의 유골함을 찾아다니던 언니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앞 뒤 상황을 모르는 나는 동그란 눈으로 언니를 쳐다보았고, 언니는 다짜고짜 나에게 왔다. 죽일 기세를 하고, 빠른 걸음으로 나에게 오는 언니의 모습은 나를 꿈쩍 못하게 만들었다. 놀라서 동그랗게 커진 눈과 경직되어 움직이지 않는 나의 몸뚱아리를 보며 스스로가 답답했다. 언니의 아우라는 항상 나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잘못된 거 하나 없지만 언니를 보면 죄인 마냥 주눅 드는 게 나의 모습이었다.

“다 나솔지 너 때문이야“

나는 황당해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언니는 유골함이 사라졌다며 내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나솔아는 언니 뒤에서 손톱을 뜯으며 소리없이 울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언니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미쳐 날뛰는 야생마 같았다. 나는 그런 언니의 모습이 무서웠다.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언니의 모습과 옆에서 언니의 불안함을 더 부추기는 나술아의 행동은 나를 더 당황스럽게 했다.

“나술아. 너가 유골함 챙기고 있지 않았어?”

“잠깐 전화하러 나갔어.”

“야. 애가 얼마나 놀랐으면 이 상황에 전화를 하러 갔겠어? 내가 나술아 언니면 동생을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유골함이 바뀐 사건은 나술아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다. 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 나술아는 꼭 끌어안고 있던 유골함을 잠시 의자 위에 올려두고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러 간 모양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엄마를 꼭 지키겠다고 그 나술아의 모습은 남자친구와의 전화 하나로 끝이 나버린 것이었다. 참 기가 막힌 그 타이밍에 다른 유가족이 엄마의 유골함을 가져간 듯 했다. 물론 그들이 의도하고 가져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필 그 타이밍에, 다른 유가족의 유골함이 왜 우리쪽에 있었을까. 그들은 왜 유골함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가져갔을까.

언니는 엄마의 유골함이 바뀐 것이 다 내 탓이라고 했다. 도자기에 싸여진 엄마의 유골함을 잠시 두고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내가 다 잘못된 거라고 말했다.

화장터 가장자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작은 공간에서 언니는 구석에서 낮이 나간 채로 앉아 있다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허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나에게 향한 매서운 눈빛은 먹이를 발견한 맹수와 흡사했다. 언니의 손가락이 내 눈을 향했고, 그 손은 부들부들 떨렸다. 언니가 울부짖으며 하는 모든 말은 다 내 잘못이라는 말 뿐이었다. 다른 사람이 엄마의 유골함을 가져갈 때 눈치 채지 못한 나의 탓. 언니는 나랑만 있으면 나쁜 기운이 몰려오는 것 같이라며 악담을 퍼부었다.

익숙했다. 언니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에게 처한 고통은 모두 남이 준 것이라고 굳게 믿고 커왔다. 자신은 절대 잘못이 없다며 큰 착각 안에 살아온 사람이 언니였다. 난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다. 나는 엄마와 언니, 나술아에게 사랑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했다. 아니.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가족이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살았다.

*

월급날은 늘 돈이 없는 날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빠져나갈 공과금과 보험금,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자와 전세대출 이자와 원금, 그리고 가족들에게 매달 달달이 백 만원씩 보내면 통장에 오롯이 남는 돈은 십만원 남짓이었다. 십 만원으로 조금씩 모아서 언젠가는 유럽 여행을 가겠노라고 다짐하며 그 중 일부를 또 자유적금 통장에 넣었다. 매달 그렇게 사는 것은 적응이 안될 줄 알았는데 결국 적응이 되었다. 참 신기한 일이었다.

언니는 정말 형부와 결혼을 계획했다. 언니 사전에는 안 되는 일은 없었나 보다. 엄마와 언니는 결혼 준비로 분주했다. 그런 나는 엄마와 언니 사이에서 가시 방식이었다.

“엄마. 나는 넓고 예쁜 결혼식장에서 내 친구들 전부 초대해서 결혼하고 싶어.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날에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쁠 거야.”

언니 형편에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이런 상상을 하는 언니가 숨겨둔 돈이라도 있는 줄 알았다. 역시나 언니는 나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

“나술지, 너 어차피 결혼 안 한다며.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은 돈 쓸 일 별로 없어.”

“돈 쓸 일 별로 없다고? 나 돈 모아서 유럽 여행 갈 거야.”

나는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언니한테 말대답을 했다. 20년 넘게 살면서 언니한테 이렇게 말한 것은 처음이었다.

“가족이니까 도와주면서 사는 거지. 너희 언니가 결혼한다잖아. 결혼보다 너 유럽 여행 가는 게 더 중요해?”

엄마는 언니를 거들었다. 가족 사이에 무슨 편이 있냐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 가족은 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엄마 말에 묵묵히 개어 놓은 빨래를 겹쳐 놓았다. 오늘 반팔티가 유독 각지게 개어 있었다. 모아 놓은 빨래에서는 시원한 비누향이 퍼졌다. 나는 비누향이 나는 수건의 끝 부분을 만지작거리며 엄마의 말을 애써 듣지 않으려고 했다.

언제나 그랬듯,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내 편이 없었다. 나도 옛날에는 나의 희생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래서 월급 받은 날 족족 엄마한테 갖다주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돈들도 언니랑 나술아가 필요하다면 바로 주었다. 내가 죽어라 일을 해도 돈을 가져가는 건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나를 위해서 돈을 써 본 일이 없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다. 엄마는 돈이 없다는 핑계로 나에게 지원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알바를 했다. 알바를 하면서 학교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밤마다 에너지 음료수를 마시면서 밤을 새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 코피 흘리면서 공부를 해도 나에게 득이 되는 건 없었는데도 무조건 열심히 살았다. 언니와 나술아는 알바 한 번 한 적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살았다.

나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다.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가장은 내가 되었다. 언니는 가장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가장이 되었다. 우리가족의 가장의 무게는 당연한 듯

다 내가 견뎌내야 할 것이었다. 가장의 무게를 견디려면 나는 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에겐 내가 없었던 것이다.

*

침대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스티커 중 부분 부분 스티커를 떼 자국이 있었다. 오늘 유독 스티커 자국은 처량해보였다. 뜯기고 싶지 않아 아등바등거렸지만 억지로 뜯겨간 스티커의 슬픔이 그 흔적으로 표현됐달까. 친구에게 선물 받은 스티커를 처음으로 침대에 붙이던 날 언니는 제일 예쁜 스티커만 골라서 가져갔다. 당시는 제일 예쁜 것은 언니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우리집에서 언니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언니의 것이었다. 책상도, 침대도, 옷장도 언니가 좋아하는 분홍색 계열로 인테리어가 되어있었다. 언니는 항상 자신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도 무조건, 무엇이든 가져가고 봤다. 빼앗긴 것보다 처음부터 언니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했다. 그러면 애초에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조차 없으니까.

침대를 버린다는 것은 홀가분하면서 조금 불안한 일이었다. 오늘 버리면 영영 볼 수 없는 침대를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다. 내가 침대를 버리고 스스로 잘 살 수 있을지 의심이 들기도 했다. 사실 겁났다. 평생 침대 곁에서 살았던 내가 침대 없는 삶은 상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 침대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침대를 버려야 내가 나를 보듬을 수 있다는 것을.

침대가 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다. 아무도 나에게 나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해주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침대를 중요하게 여겼다. 침대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다며. 모두들 나에게

침대가 중요하다고 했다. 맞다. 중요했다. 나는 침대를 통해 스스로 깨달았다. 스스로 깨달았기에 누구보다 완벽하게 잘 해낼 거다.

침대를 버리러 가는 길은 유독 멀게 느껴졌다. 우중충한 하늘과 축축한 땅 사이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맨살에 닿는 바람의 촉감은 내가 살아있음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다. 떨어질 듯한 팔을 붙잡고 손가락 끝에 온 힘을 다해 힘을 주며 침대를 옮겼다. 힘겹게 옮겨온 침대를 나는 쓰레기장에 두었다. 오늘따라 혼자 있는 침대는 더 외로워보였다. 나는 멍하니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는 침대를 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본 채 침대의 곁을 홀연히 떠났다.

침대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오니, 집 안의 공기는 상쾌하면서도 시원했다. 방으로 들어가보니 침대를 버린 자리가 어색했다. 내 방에서 침대가 차지하고 있던 면적이 컸나보다. 침대를 버리고 오니 내 방은 텅 비어 너무 허전했다. 마음 한 켠이 시원하면서도 침대가 없으니 불안한 감정이 솟구쳤다. 그럴 때면 나는 다시 결심했다. 그래서 나는 바로 내 방을 다시 새롭게 단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따뜻하고도 아늑한 방을 만들기로 했다. 타인을 위한 방이 아닌 내가 쉴 수 있는 진정한 내 방으로 만들기로. 나에게 아무리 침대가 소중한다고 한들, 나를 버리면서까지 소중하지 않았다.

비가 온 뒤 맑게 갠 하늘에 무지개가 보였다. 수고한 나를 위로해주듯, 하늘의 구름은 포근해보였다. 나는 방 창문 너머 보이는 하늘을 가만히 바라보았다.